

곡성군, ‘농산물 우수관리(GAP)’기본교육 실시

군민회관서 매실 농가 100여 명 대상

재인증 필요 농가 읍면 순화 교육도

곡성군이 3일 군민회관에서 매실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이란 우수 농산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들을 관리하고 인증한다.

현재 곡성군은 다양한 품목에 800여 농가가 참여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뤄낸 결과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못난이 농산물이어도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면 비싸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하

겠다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안전하고 몸에 좋은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GAP 기본 교육은 기존의 인증농가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재인증이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 읍면 순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분석비를 전액 지원한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하



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품목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곡성 농산물을 안심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군, 신학기 맞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화순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학기 맞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군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나 기관에 안전점검 계획을 전달하고, 2월 말까지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체 또는 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수합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점

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시공원(9개소), 어린이집(12개소), 주상복합(4개소), 주택단지(39개소)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71개소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및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개량 지원

나주시가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준다.

나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노후 슬레이트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石棉)이 함유돼있다.

나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주택 312동,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357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동당 1000만원 내에서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철거 및 개량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0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농업인 돕는 구원투수

‘장성군 과수전정단’ 출동

장성군 과수전정단이 1일 삼서면 사과농장에서 올해 전정 작업을 시작했다. 기간은 3월까지며 총 40헥타르(ha) 규모로 추진된다.

장성군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 과수전정단을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철저한 이론 교육과 반복적인 실습,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과수전정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1~3기 사과, 감 품목 과수전정단 106명이 일선 농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반응은 호평 일색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전정 전문가들이 보니 작업의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정 가격도 시중보다 10~15% 저렴해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1인 1일 기준 사과 18만 원, 감 16만 원으로, 1인당 최대 1헥타르까지 지원한다.

고령농, 여성 농업인, 장애인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작업해 농업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新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재운영

구례군과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新 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를 오는 7일부터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례 희망나눔가게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식품류,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이 월 1회에 한하여 2~3품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21년 6월부터 운영했던 희망나눔가게는 총 50건의 개인 및 단체에서 화장지, 참기름, 배게, 달걀 등을 기부받았으며 총 1,416명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하는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 공간

이다. 특히, 기존 일반적으로 배분하는 후원물품과 달리 이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 필요한 물품만 직접 선택 이용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기부처 발굴 및 다양한 후원 물품을 모집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는 “구례의 타인능해 정신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니만큼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친환경 쌀,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에 연간 200톤 공급 확정

대슬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시 도봉구 학교 밥상에 오른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도봉구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돼 서울시 도봉구지역 초·중·고교 47개소에 연간 200톤의 쌀을 공급하게 됐다.

대슬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1,000여 톤의 쌀을 서울시 성북구 등 956개소의 학교에 공급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양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모두가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